

저항정신의 위대함과 그 한계

-마르틴 루터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김대인(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들어가며

필자는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학회참석차 독일을 방문하는 길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루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대학원 시절에 법학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법학자인 Harold Berman의 책 'Law and Revolution'을 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너무 성급하게 개신교신학을 현대법학이론에 접목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신교신학이 실제로 서구법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체계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있고, 특히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루터의 신학사상은 독일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비텐베르크(Wittenberg)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루터가 대학교수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우선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여놓았다고 하는 성(城)교회(Schlosskirche)로 갔다. 95개 조항을 붙여 놓았던 원래 문은 부서지고 없고, 새로 청동으로 문을 만들어 놓았다. 95개 조항의 제1조는 '우리의 주님이시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 조항이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부흥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루터가 이야기한 '삶 전체의 회개'를 보다 깊이 묵상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루터가 설교를 했던 성(聖)마리엔교회(St. Marien Kirche)로 갔다. 루터가 이곳에서 독일어로 설교를 했다고 한다. 라틴어설교가 대세이던 시절에 민중과 호흡하기 위해 독일어를 사용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에는 크라나흐(Lukas Cranach)가 그린 종교화가 여러 편 걸려 있었다. 이 중에서도 포도원을 묘사해놓은 그림이 인상적이었다. 포도원 한쪽에서는 교황, 수녀, 신부들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루터, 멜랑히톤 등 종교개혁가들이 포도원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교황이나 루터나 모두 자

신이 하나님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혹시 나는 하나님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나라를 파괴하는 삶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비텐베르크에는 멜랑히톤(Melanchton)과 루터의 집이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두 곳에서 멜랑히톤과 루터에 관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루터는 멜랑히톤과의 긴밀한 교류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 특히 루터가 신약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희랍어학자였던 멜랑히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둘째, 루터와 멜랑히톤이 항상 견해가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에라스무스에 대한 견해가 특히 달랐고, 멜랑히톤은 루터의 결혼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 셋째, 루터는 식사후에 항상 당대 학자들과 토론을 즐겼다. 이 토론회에는 단 한 명의 여성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루터의 부인이었다. 넷째, 루터가 농민들의 반란을 반대했던 것은 원래 저항은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반란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요구한 것은 루터를 평화주의자로 평가하기 힘든 원인이 된다.

아이스레벤(Eisleben)

아이스레벤은 루터의 출생지이자 사망지이다. 이곳에서 우선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성베드로/성바울교회(St. Peter & St. Paul Kirche)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만난 티켓판매를 하시는 아주머니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지난 주일에 한국에서 온 목회자 30여분이 이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의 예배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다.

다음으로 루터가 태어난 집으로 갔다. 역시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루터의 출생배경을 중심으로 전시를 해놓았다. 루터는 광부였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 유복한 환경 가운데 자라지는 못했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루터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루터가 사망한 집에는 많은 유물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루터가 죽기 바로 직전에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찌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그저 성경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루터는 사망이 가까워올 무렵에 쓴 편지에서 평생 교황과 싸우는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으로 확신하는 내용을 남겼다. 나는 인생의 끝무렵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이제나흐(Eisenach)

아이제나흐에는 유명한 바르트부르크성(Wartburg Schloss)이 있다. 이곳에서 루터가 은신을 하면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바르트부르크성은 매우 아름다웠다. 매우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시내가 한 눈에 들어왔다. 푸른 숲 속에 자리 잡은 도시가 너무나 평온해보였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성엘리자베스(St. Elizabeth)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 분은 13세의 사람으로 헝가리귀족 출신의 여성으로 이곳으로 와서 결혼을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성에서 나와 마부르크(Marburg)에서 살았다. 그녀는 귀족으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생의 말년을 병원에서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마무리했다. 귀족출신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당시에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후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병원사역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루터가 신약성경을 번역했던 방이 남아 있다. 교황에 대한 비판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던 루터를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이곳에서 보호했는데 그 때 성경번역을 한 것이다.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성경번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라틴어로부터의 번역이었고, 희랍어원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은 루터가 최초였다고 한다. 남에게 신변을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처럼 번역에 몰두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했다. 독일국민에게 제대로 된 성경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루터를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아이제나흐 시내로 나오니 루터의 집이 있다. 루터가 어린 시절 라틴어학교에 다니면서 지냈던 곳이다. 루터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곳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고, 돈을 벌기 위해 귀족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곤 했다고 한다. 루터의 가정환경이 넉넉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루터는 노래를 아주 잘했고 나중에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목사관’(vicarage, 독일어로는 Pfarrhaus)이라는 개념이다. 원래 수도승이었던 루터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의 개혁의 순수성이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루터는 가정과 목회사역이 결합된 모델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을 늘 오픈하여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등의 사역을 ‘목사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루터가 결혼을 성례(sacrament)에서 제외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세속화시킨 면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결혼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재발견한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루터가 ‘자발적인 가난’의 정신을 비판한 것은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루터는 이런 자발적인 가난이 자기의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을 했지만 이러한 자세가 기독교의 세속화를 가속화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부의 축적을 긍정적인 결과 이것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루터가 교황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카톨릭의 좋은 전통까지 함께 비판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주의해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에어푸르트(Erfurt)

이곳은 루터가 수도사로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Augustinerkloster)이 있는 곳이고, 루터가 대학을 다닌 곳이기도 하다.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가이드투어를 통해서만 수도원내부를 들어갈 수 있다. 잠겨 있는 여러 개의 문을 열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적막감과 평온함이 밀려들어왔다. 루터가 지냈다고 하는 방도 들어가 보았는데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자그마한 방이었다.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에 따른 삶 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루터는 나중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곳에는 루터가 보던 라틴어성경책이 남겨져 있다. 이 성경책을 보면 루터가 곳곳에 줄을 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는 등 루터가 치열하게 말썽을 붙들고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루터의 깨달음도 이런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것이리라. 이곳 수도원 내에 있는 숙소는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된다고 한다. 며칠간이라도 이곳에서 피정을 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가며

루터의 삶은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시에 절대적인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필자는 루터가 이야기한 다음의 이야기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시류를 거슬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